

창2:1-17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Verse 7, *And Jehovah God formed man, dust from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ves,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 7절 속뜻

주님은 천적 인간의 겉 사람을 지으시되 그의 이해와 의지에 맞게 각각의 생명을 주십니다. 앞의 5, 6절이 이해의 생명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번 7절은 의지의 생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천적 인간의 겉 사람에게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퍼셉션을 주시는 것이며, ‘생기(the breath of lives)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입니다. 이 퍼셉션으로 말미암아 겉 사람은 속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는 상태가 되며, 이때가 ‘살아있는’(alive) 상태이고, 이를 일컬어 ‘사람이 생령(a living soul)이 되니라’ 하신 것입니다.

94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의 겉 사람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를 보면, 그의 겉 사람은 전(before)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To “form man, dust from the ground” is to form his external man, which before was not man; for it is said (verse 5) that there was “no man to till the ground.”*

‘생기(the breath of lives)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는 그에게 신앙과 사랑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령(a living soul)이 되니라’는 그의 겉 사람 또한 살아있는(alive)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To “breathe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ves” is to give him the life of faith and love; and by “man became a living soul” is signified that his external man also was made alive.*

※ ‘그에게 신앙과 사랑의 생명을 주시는’(to give him the life of faith and love)이란 ‘우리의 신앙과 사랑에 생명을 더하시니’(to put life into our faith and love)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95 앞의 두 구절에서는 겉 사람의 생명, 즉 신앙 혹은 이해의 생명을 다루었다면, 본 절에서는 그의 사랑 혹은 의지의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The life of the external man is here treated of—the life of his faith or understanding in the two former verses, and the life of his love or will in this verse.*

지금까지 겉 사람은 속 사람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투에 임하면서도(*being engaged in*) 사실은 그를 따르며 섬기는 걸 내켜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겉 사람은 아직은 ‘사람’(*man*)이 아니었습니다. *Hitherto the external man has been unwilling to yield to and serve the internal, being engaged in a continual combat with him, and therefore the external man was not then “man.”*

그러나 이제 천적 인간이 되어가면서(*being made*) 겉 사람은 속 사람에게 복종, 그를 섬기기 시작하며, 신앙의 생명, 사랑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면서(*being so rendered by*) 또한 ‘사람’이 됩니다. *Now, however, being made celestial, the external man begins to obey and serve*

the internal, and it also becomes “man,” being so rendered by the life of faith and the life of love.

그를 준비시키는 것은 신앙의 생명이지만, 그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The life of faith prepares him, but it is the life of love which causes him to be “man.”*

※ 거듭 신앙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며,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그의 생명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밭에서 갓 수확한, 흙이 묻고 거친 채소를 거듭남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인간이라면, 채소, 과일 등 잘 다듬고 정성껏 씻어 준비한 식재료들은 영적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먹기 좋은 훌륭한 음식, 요리가 되려면 최종적으로 열을 가해야 하는데 이 열이 바로 사랑이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최종 상태가 바로 천적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¹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²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³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전13:1-3)

로 추대된 성 뿌르피리오스 수도사제의 모든 것을 담은 책, ‘향기로운 삶과 말씀’(백은영 역)을 권합니다.

※ 참고로, 여기 ‘향기’(odor, fragrance)와 관련,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삼층천 천적 천사들이 오면 어떤 향기가 동반되는데요, 이 향기는 악한 영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이어서 그들은 삼층천 천사들이 오면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5세기 리드비나 성녀 이야기에, 18세기 성 분도 요셉 라브르 이야기에 이 향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드비나 성녀는 어렸을 때 얻는 사고로 평생 누워지내야 했었는데, 그녀의 상처 피고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방 가득 향기로 가득했다 하며, 분도 사후, 그의 묘를 둘러싼 주변에 향기가 가득,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애 또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9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는, 고대에, 그리고 말씀에서, ‘코’(nostrils, 콧구멍)는 퍼셉션(perception)을 상징하는 향기(odor, 냄새)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감사로 이해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As to its being said that “Jehovah Go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case is this: In ancient times, and in the Word, by “nostrils” was understood whatever was grateful in consequence of its odor, which signifies perception.*

※ 이 퍼셉션은 홍수 이후 사람들은 알 수 없게 된, 오직 홍수 이전인 태고교회 사람들한테만 허용된, 선과 진리를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내적 호흡이라 할 수도 있고, 입류(入流, influx)의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과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입니다. 천사들은

※ 어떤 ‘향기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맛보는 모든 즐거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퍼셉션입니다.

※ 가장 최근에 정교회에서 성인으

창2:7, AC.94-9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퍼셉션으로 주님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퍼셉션이 사라져서 인류가 더 이상 주님과 결합할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그 빈자리를 ‘양심’(良心, *conscience*)이라는, 좀 더 낮고 탁한 것으로라도 대신하셔야만 했을 정도로, 이 퍼셉션은 주님과 인류의 결합에 있어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성인 선과 진리를 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어떤 식으로든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순간이라도 소위 존재, 존속할 수 있습니다. 태고교회 사람들에게 허용되었던 이 퍼셉션이 단힌 것은 그들의 어두워짐,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와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들, 가령, 번제(燔祭, *the burnt offerings*)나 주님, 주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들에,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신앙에 관련된 것을 무척 기뻐하시기(*most grateful to*) 때문에 이르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하십니다. *On this account it is repeatedly written of Jehovah, that he “smelled an odor of rest” from the burnt offerings, and*

from those things which represented him and his kingdom; and as the things relating to love and faith are most grateful to him, it is said that “he breathed through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ves.”

※ 사랑과 신앙에 관련된 것을 아는 능력이 곧 퍼셉션입니다. 또,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¹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²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12:1, 2)

그래서 여호와, 곧 주님이 임명하신 자를 가리켜 ‘콧김’(애4:20)이라고 합니다. *Hence the anointed of Jehovah, that is, of the Lord, is called the “breath of the nostrils” (Lam. 4:20).*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쁨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애4:20)

주님 자신 요한복음에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라 하심으로써 같은 걸 상징하셨습니다. *And the Lord himself signified the same by “breathing on his disciples,” as written in John:*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20:22)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ye the Holy Spirit. (John 20:22)*

97 생명을 ‘호흡’(breathing)과 ‘숨’(breath)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태고교회의 사람들이 사랑과 신앙의 상태를 호흡의 상태로 지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후에 그 후손들로 내려오면서 연속적으로 변했습니다. *The reason why life is described by “breathing” and by “breath” is also that the men of the most ancient church perceived states of love and of faith by states of respiration, which were succe*

ssively changed in their posterity.

이 호흡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Of this respiration nothing can as yet be said, because at this day such things are altogether unknown.*

태고 사람들은 이런 것에 매우 친숙했고, 내세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영 또는 생명을 ‘바람’(wind)에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The most ancient people were well acquainted with it, and so are those who are in the other life, but no longer anyone on this earth, and this was the reason why they likened spirit or life to “wind.”*

주님 또한 요한복음에서 사람의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The Lord also does this when speaking of the regeneration of man, in John.¹*

바람이 임의로 불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창2:7, AC.94-9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3:8) *The wind bloweth where it listeth, and thou hearest the voice thereof, and knowest not whence it cometh, or whither it goeth; so is everyone that is born of the spirit. (John 3:8)*

시편에서도 *So in David:*

여호와와 그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33:6) *By the word of Jehovah were the heavens made, and all the army of them by the breath of his mouth. (Ps. 33:6)*

²⁹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³⁰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104:29-30) *Thou gatherest their breath, they expire, and return to their dust; thou sendest forth thy spirit, they are created, and thou renewest the faces of the ground. (Ps. 104:29 - 30)*

‘숨’을 사용하여 신앙의 생명, 사랑

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율기에 있습니다. *That the “breath” [spiraculum] is used for the life of faith and of love, appears from Job:*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욥32:8) *He is the spirit in man, and the breath of Shaddai giveth them understanding. (Job 32:8)*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33:4) *The spirit of God hath made me, and the breath of Shaddai hath given me life. (Job 33:4)*